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정치와 평화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런 만큼 심리적인 불안이 풀려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명분이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전쟁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죽이고 죽는 과정에도 명분은 필요한 것인가? 민족이나 인권이나 세계적 정의나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러한 단어들은 결국 또다른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반도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이 당대에 인간 세상에 평화는 가능한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사랑도 평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필자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아쇼카대왕을 떠올리고자 한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대왕(기원전 268-232)은 부왕의 뒤를 이어 전인도의 통일을 위해 정

숨은 용서와 화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는 파세나디 임금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인데 코살라의 파세나디왕과 마가다의 아자타사투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자타사투왕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처음에 파세나디왕의 패배로 시작된다. 파세나디왕은 겨우 목만 빠져 나와 사위성으로 돌아왔다.

이 전쟁이 있은 얼마 후 아자타사투왕은 아예 코살라를 없앨 심산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켰으며, 이 전투에서 파세나디왕은 마가다국의 군대를 궤멸시키고 아자타사투왕까지 사로잡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였던 파세나디왕은 아자타사투왕을 놓아주기로 작정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아자타사투왕은 나의 친구 밍비사라왕의 아들이므로 그를 놓아주겠다'고 밝혔다. 이긴다 한들 끝내는 원한만 더욱 커질 뿐이므로 차라리 그를 놓아주어 국가적인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파세나디왕의 뜻이었던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분노와 미움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서 가능하다. 파세나디왕과 아쇼카대왕이 그렇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용기에 찬사

인간 존엄성 어떠한 가치보다 우월 용서·화해로 통합될때 진정한 평화

북 전쟁을 벌였다. 그는 왕위에 오른지 8년만에 인도의 동부지방에서 벌어진 칼링가 전쟁의 승리로 전인도를 통일하는 대업을 완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에서 숭한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간 모습과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면서 통탄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률치를 통해 인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아쇼카왕은 왕과 귀족들이 오락으로 행하던 사냥을 금지시켰고, 인도 각 지방을 돌며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대대적인 자선사업을 벌여 각처에 고아원과 양로원, 병원을 세운다. 뿐만 아니라 길가 마다 우물을 파지 나가거나 나그네와 동물들이 먹게 했으며, 국교를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약초와 과일나무를 심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도로에는 표지판을 세우고 가로수를 심거나 휴양소를 세워 여행자들의 편리를 도모 하였다. 칼과 전쟁 대신 부처님 말씀에 따른 정법정치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이 태평성세를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부처님의 말

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치의 본분은 백성을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회생되지 않으면 안될 숭한 증생들의 고귀한 삶과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법구경> 안락행품의 계승을 음미하는 것으로 잠든 우리들의 내면을 일깨우기로 한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거나 원한 지닌 그 속에서 생내지 안노라, 흔하듯 모두 원한 있어도 나의 가는 길엔 원한 없도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투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다/ 열(熱)로는 애욕보다 더함이 없고, 욕(欲)로는 성냄보다 더함이 없다. 고(苦)로는 몸보다 더함이 없고 즐거움으로는 열반보다 더함 없도다/ 병(病)이 건강함은 더 없는 이여,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더 없는 부귀, 두려운 신의는 더 없는 친구, 열반은 더 없는 행복이리라/ 법을 생각해 수지하는 그 맛을 알고 온갖 망상 그치는 뜻 생각한다면, 다시는 열도 없고 굶주림도 없으니 너 진리의 음식을 먹도록 하라"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가운데)이 손상자인 주경스님(오른쪽)과 정암스님(왼쪽)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있다.

“아는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

범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 원담스님, 기자들과 일문일답

웃는 모습이나 남자들을 대하는 행동이 순수하고 맑아 '천진불'로 불리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최근 발간된 원담스님의 범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과 78번째 생일 하루 전인 11월18일 저녁에 수덕사에서 교계 기자들과 함께 원담스님을 만났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항간의 얘기와는 달리 스님은 밝은 표정으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건강하고 여유있는 모습이였다.

건강이 어떠냐고 여쭙았더니 "좋아요, 발도 잘 먹어요" 하신다. 범어집이 나온 소감을 물자 "잘 나왔어요" 하시면서도 대뜸 "범어집 자체가 잘못이에요. 범어집이 없으면 시비도 없을 텐데 범어집이 나왔으니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것이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손상자인 주경스님(총무원 총무국장)과 정암스님(수덕사 박물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스님의 겸손함이야 이미 다 알려졌듯이, 아상을 세우는 법이 없고 늘 슬직하다고는 하지만 다소 의외의 말씀이였다.

▲범어집에는 없지만 대중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 만공스님의 가르침은?

삼라만상을 다 가르치셨어요

■ 수행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할말 다했다. 부지런히 일어나 가거라

-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애기하면 알겠다. 알지 못할 말을 왜 물어보나.
- ▲책(법문집)을 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
-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
-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수덕사 박물관장 정암스님)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내 웃으시며 정암스님에게 팔뚝을 놓으신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질문에 대한 말씀은 꼭 한 마디씩뿐이다. 말씀이라도 길게 하시면 행간에서 어림잡아보기도 하련만... 게다가 알 듯 말 듯한 신문 답이다.

▲만공스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삼라만상을 다 가르치셨어요. ▲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

-주경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원담스님이 주경스님에게도 팔뚝을 놓는다)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원담스님은 그런 기자들을 손바라보시듯이 웃으며 편안한 눈으로 응시한다. 이때 원담스님을 모시고 있는 기자 박보스님이 말했다. 8번째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원담스님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읽는 스님이다.

"남자들이 오면 시험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스님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주먹을 들어 보이시며 '표현해 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염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 호응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저녁7시 ~ 9시) 숨차지 않고 힘들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림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마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나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 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 차량운행 : 2003년 11월 29일 토요일 근자천철역 4번출구 → 범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등등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 차량 예약문의 : 양 현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절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청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역에 주의를 쓰는 첫 차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지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거나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무의존,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우리나라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특화된 키오방편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키오방편 마르세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A20이던 누구나 뭉쳐나지 오면가까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떤 언드라는 특유의 변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도원가경 원력외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령은든 우인의 운율을 단점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 [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진)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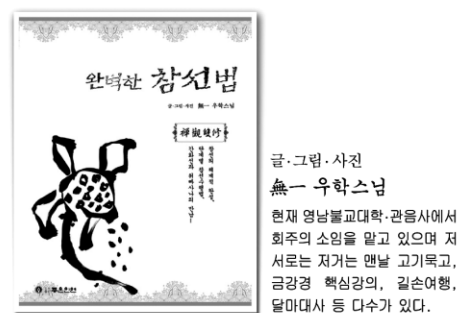
역학계의 거두 한중수 선생의 역학(易學) 특강안내

거센 삶의 파도를 넘고 있는 고단한 현대인들, 굶이치는 인생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길잡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고난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전통의 '동양역학 천재지식'을 전수하여 그들의 카운슬러가 되십시오.
40여년 동안 역학분야의 전문서적을 저술한 정통학자로서 '역학대전', '명명사전', '성명학', '역법', '역호학', '태상명리교과', 등 50여 종의 역학 전문서적을 집필한 한중수선생
● 대역학자가 되고 싶은 분 ● 역학 전 분야의 상식을 얻고 싶은 분
● 역학 상담사 (전화상담, 철학관 운영,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심리 상담사, 결혼 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역학 접목이 필요한 분
■ 교육일정
구분 과 목 편성내용 기간 교육시간
주말반 명리반 기초반,고급반 각3개월 1400-1700
주말반 육효반 원성반 각3개월 1400-1700
주중반 명리반 기초반,고급반 각3개월 1900-2200
주중반 육효반 원성반 각3개월 1900-2200
특별반 : 수시로 탄력적 운영!
* 강의 교재 및 보조교재 (동용이해에 입체성으로 작성)
* 명성 역학원 원장 지산 허용일 선생, 수강요청시 무료 보조교육 (수시)
■ 특별반 초청강사 (과외)
● 소리 성명학 (조종현) 선생 ● 궁성학 (한인수) 선생
● 타로카드 (이재학) 선생 ● 대정수 (박명관) 선생
■ 특 전
● 전회 상담사 취업 알선
● 수료 후 수료증 수여 (자격증 기능)
● 매월 장학선생 1회 시험 실시 후 장학금 수여
■ 교육비
● 교육장 및 집수 시당역 본원 (2~4호선 환승역 5번 출구에서 약 50m)
■ 모집방법 각반 선착순 30명
교육주관 역학전문교육 명 성 원
신청문의 02)521-8425/8426/8428 FAX: 02)521-8434
E-mail : jisang6821@hanmail.net

'저거는 맨날 꼬기목고'의 저자 無一 우학스님의 신간!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대립화, 차별화하지않고 서로 보완, 통합시켜주는 참선법으로서 단계별 수련을 제시하고 있다.



4·6번형 / 칼라 256쪽 / 정가10,000원
출판 중은인연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부속출판사
전화(053)475-3707 팩스(053)475-3706 E-mail buddhbook@hanmail.net

